

현장시선



박 동 준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장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주 또한 마찬가지.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제주는 관광·서비스 업종 소비가 매우 크게 감소하였다. 관광 수입이 지역 총생산의 7할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악재 속에서 기업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변화에 대응하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다. 내실을 다져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방법은 바로 근로자들의 교육 및 훈련이다. 코로나 시대의 기업은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지만, 내실 없는 변화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결단과 더불어 직원들의 직무역량 또한 뒷받침되어야 한다. 관광 산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세계여행관광협회(WTTC)의 국제표준 위생보건 프로토콜 도입, 코로

나 상황별 환경정책 수립과 시행, 감염병 관련 보험시스템 정비 등 관광산업 환경은 급변하였고,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직무역량 향상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HRDK) 제주지사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의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우선 지원기업의 경우 8시간이상, 대기업의 경우 16시간 이상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커리큘럼을 운영한다면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는 HRD-net 및 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근로자의 고숙련 직무 능력과 스마트제조, 사물인터넷(IOT) 등의 신기술 수행 역량을 개발하는 고숙련·신기술 훈련과정도 지원하고

있다. 비대면 환경 변화에 맞춰 제주지사에서는 올해부터 훈련 참여 희망 기업에게 방문컨설팅 뿐만 아니라 화상 컨설팅 또한 지원할 예정이다.

위기(危機)는 위험(危險)과 기회(機會)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다. 위험이 닥쳤을 때 미래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전문가들도 코로나 시대의 종식이 언제가 될지 정확한 예측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백신 배포 이후에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한동안 계속 될 전망이다. 이런 시기일수록 좌절하지 않고 현명한 선택으로 기회를 노려야 한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은 기업에게 시간이라는 당장의 지출을 가져오지만, 기업이 거목(巨木)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올 한해 기업들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함께 근로자들의 직업훈련을 통한 코로나를 이겨내는 승리(Victory)의 브이노믹스를 만들어내길 기대해 본다.

사설

대목도 행사도 사라진 화훼농가 대책 없나

요즘 화훼농가는 한마디로 죽을 맛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받고 있어서다. 다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화훼농가의 사정은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졸업식과 입학식 등 화훼농가가 대목으로 여기는 '특수'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몰라 화훼농가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대내 화훼업계에 따르면 화훼농가·꽃집 등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1월부터 매출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초·중·고 등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이어지는 1-2월은 화훼업계의 최대 대목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해 이번 졸업 시즌까지 화훼업계의 한 해 '특수'가 2년째 사라지고 있다. 방역 때문에 학부모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비대면 행사로 대부분 치러지면서 꽃다발 수요가 거의 끊겼다.

특히 겨울철에는 1송이씩 팔거나

대목으로 묶어 파는 장미·프리지아 등 생화(절화)가 격정이다. 잘라낸 생화 특성상 난방 등을 통해 보관하며 수명을 늘려야 한다. 생화 보관 기간이 일주일에서 길게는 열흘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기간에 팔리지 않으면 변색되거나 시들어서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다.

화훼농가의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초부터 전 세계로 번진 코로나19로 수출길도 원천봉쇄된 상태여서 힘들 수밖에 없다. 한 꽃집 주인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수입이 거의 70% 이상 줄었다"고 토로했다. 이게 화훼업계의 현주소다. 그러잖아도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화훼 생산·소비 규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기댔던 대목이 실종되고, 각종 행사와 축제마저 취소되고 있으니 얼마나 어렵겠는가. 한숨짓는 화훼농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야생들개 포획, 도 전역 확대해라

야생들개가 도민들 안전과 재산에 위협하는 지역사회 골칫덩이로 등장한 지 오래다. 야생들개는 주인을 잃은 후 야성에 적응하면서 무리지어 다니며 가족을 공격하고, 사람에게 공포감을 주는 게 문제다. 지역과 시간대 구분없이 떼지어 다니며 공격하는 습성으로 지역민들의 민원제기가 잇따랐다. 최근 야생들개로 인한 가족 피해는 의외로 많고 대담해지고 있다. 주로 닭 오리에서 염소나 송아지 피해까지 확대돼 충격적이다. 최근 피해건수가 2018년 10건·280마리(폐사 기준), 2019년 10건·533마리, 2020년 9건·130마리에 이른다. 가족폐사만 이 정도인데 일반 피해사례를 합치면 더욱 많을 것이다.

이 상황에 처음 시도한 포획을 위한 야생들개 생포실적이 큰 효과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시가 작년 하반기 읍·면·동별 출몰 지역을 중심으로 대·소형 포획틀 21개를 설치한 결과 연말까

지 무려 93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한림읍에서 최대 23마리를 잡은데 이어 애월읍 19마리, 구좌읍 17마리, 조천읍 11마리, 한경면 7마리, 동지역서 16마리를 각각 포획했다. 관내 전 지역에서 골고루 잡힌 점으로 미뤄 야생들개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거기다 경계심이 강한 야생들개 특성상 블루건(마취총) 포획이 안되고, 노루·멧돼지처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지 못해 포획도 못하는 상황에 포획틀에 의한 생포 성과를 거둔 점도 의미가 있다.

이제 야생들개 포획은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들판 곳곳에서 출몰하는 들개를 쉽게 목격하는 농민들의 공포심과 가족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고통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 견주들도 유기하지 않고, 책임감을 갖고 반려견을 키우도록 동물등록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열린마당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나기



이 영 구 서부소방서 애월119센터

방용품은 반드시 고장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며 난방용품은 KS 또는 공인된 인증제품을 구입한다.

둘째, 전기장판을 접어서 보관하면 접혔던 부분의 열선 피복 손상으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말아서 보관해야 하며 열 축적이 좋은 라텍스 소재와 같이 사용하거나 너무 높은 온도로 사용하면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않은 이불을 깔고 사용해야 한다. 셋째, 전열기구들은 소비전력이 크기 때문에 문이박식 멀티 콘센트를 사용하면 과부하로 화재가 일어나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가급적 단독 콘센트나 전류차단 기능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넷째, 가스히터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 증폭으로 질식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시로 충분한 환기를 시켜줘야 한다.

이 점을 유익해 일상생활에서 조금씩만 신경을 써준다면 겨울철 화재 예방이 어렵지 않으니, 3대 겨울용품 안전 수칙을 실천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올해 첫 상설정책협의회 개최 촉각

코로나 극복·특별법 개정 안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의 올해 첫 상설정책협의회가 이달 중 열릴지 주목.

14일 제주도와 의회에 따르면 상설정책협의회 개최를 위한 일정과 안건을 논의중.

현재 안건으로는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응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대응해 '제주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불수용 과제 재검토 및 설득 논리개발 마련 등이 거론.

고교체제개편 자화자찬 빈축

○...제주도교육청이 2021학년도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고교체제개편의 성공적 결실"이라고 자평해 빈축.

지난 13일 도교육청은 관련 보도자료를 내면서 "고교체제개편의 노력으로 제주도 동지역 상위권 학생들이 읍·면지역 학교를 선

택하는 흐름이 만들어졌다"라고 평가.

그러나 올해 제주도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 탈락자는 34명으로 지난해 2명보다 17배 늘었고, 합격선도 최근 3년 중 가장 높아 교육청의 평가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빚발.

'녹색일자리사업' 조기 추진

○...서귀포시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실업자들을 대상으로 녹색일자리 사업을 조기 추진한다는 계획.

올해 녹색일자리 사업에는 총 29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 가로수 및 녹지관리(23명)·공원관리(22명)·공공 산림 가꾸기(12명)·산림 재해일자리(83명) 등 부문에서 모두 140명을 선발 운영.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녹색일자리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용강동 가족모지용 매매 묘지허가 가능 010-6360-9167 010-7666-2310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빙의·신들림 증세로 고생하시는분 상담환영 750-2828 064)746-0789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한라일보가 대 勢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